

현묘의 사주명리 종급

제 9 강

명리약언 자평진전 그리고 용신

명리약언의 저자

진소암(陳素庵)

명말~청초 인물(1605~1666)

최고 명문가 출신 <조부 : 도의 행정 최고책임자(포정사), 부 :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책임자>

진소암 : 관리, 시인, 명리학자

삶 : 명말 진사 과거급제 -> 청대 최고 관직인 **대학사** 역임 후 귀양

저서 : 명리약언, 편저 : 적천수집요

포인트 명문가 출신, 당대 최고의 문장가, 지식인, 최고 권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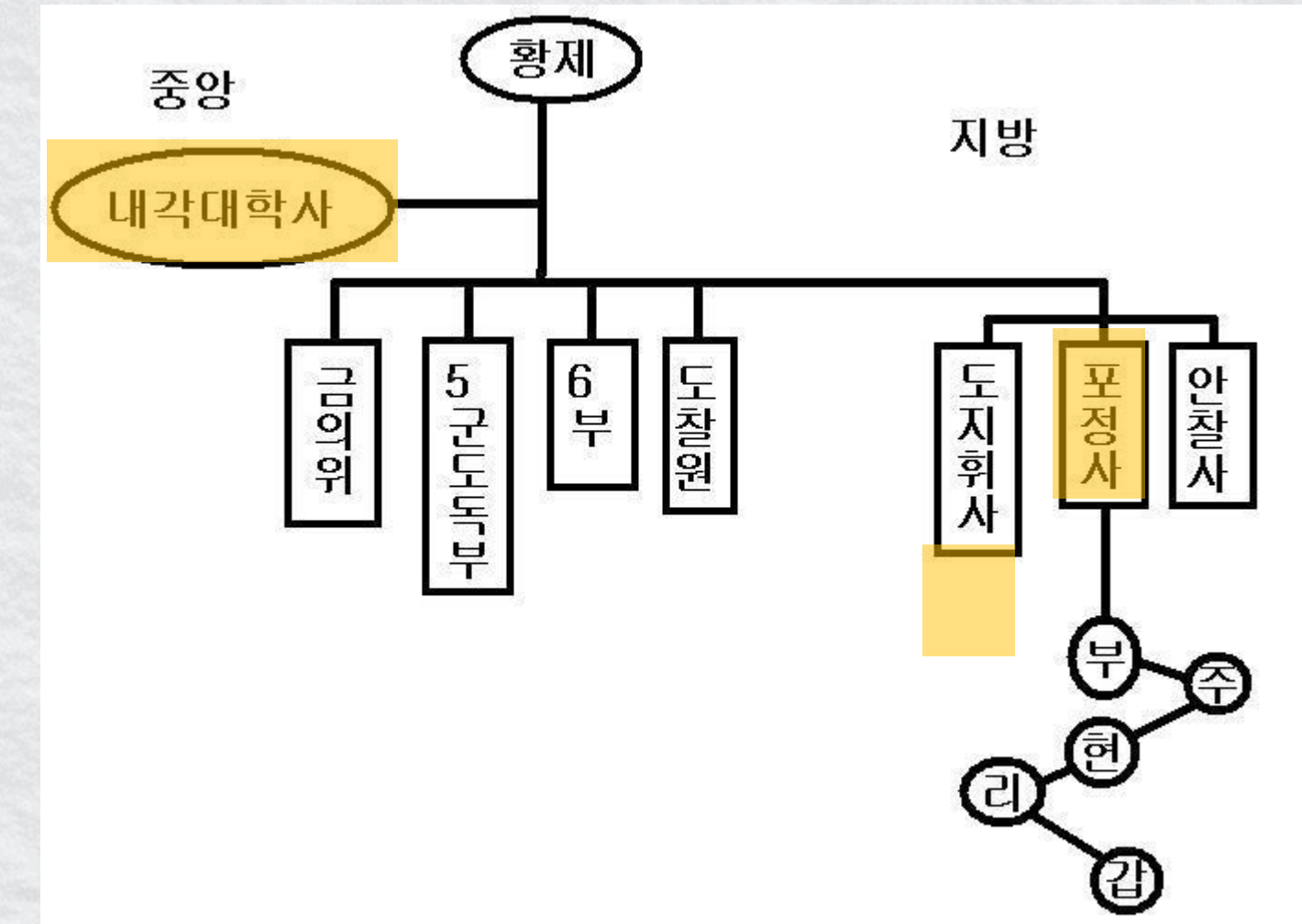
명,청대 황제가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행정 조직의 치밀성과 체계성

(오로지 문서 시스템으로 대륙을 통치하고, 군사력을 장악함)

수보(대학사)는 행정의 달인, 정리와 조율, 체계적 정리의 최고 능력자

그간 난립해오던 명리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었음**

명리약언=**명리**를 요약 정리한 책



대학사 : 명~청대초 행정 조직의 최고 수장

(수보首輔 =재상)

황제를 도와 조정의 모든 업무 총괄

대학사 : 내각제의 총리역할.

황제 : 추상적, 상징적인 최고 권력

모든 문서의 보고 여부

행정 조직의 개편과 갈등 조율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늘 견제와 탄핵의 위험에 노출됨)

명리약언의 출판

출판

1933년 장청거가 친구인 선중책의 조상이 필사한 명리약언을 입수
현대 명리학의 대가인 원수산(명리탐원), 위천리(명학강의)와 교류하며,
『정선명리약언』 출간



발전과정에서의 명리약언

명리를 학문의 반열로! 용신을 제시하다!!

서자평-서승-당금지

연해자평 (송대) - 다양한 신살, 납음오행, 격국의 난립
- 종합백과적 서적, 일관된 관점의 부재

만민영

삼명통회 (명말) - 종합백과+체계화, 사고전서에 수록된 책
납음오행, 다양한 신살, 격국 소개
고법인 신살+납음과 신법인 자평법을 모두 소개,
고법과 신법의 과도기적 의미(납음을 버리지 마세요~)

진소암

명리약언(청대) - 신살 비판, 납음 비판, 십이운성 비판
격국과 억부의 체계 정립, 용신론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돋보임

최초로 명리를 정리화, 체계화 한 이론서

이론의 소개에서 벗어나 저자의

견해를 일관되게 논술한 최초의 명리학 서적

사고전서(四庫全書)

-1782년 완성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종합 총서(백과사전)
-건륭제의 명에 의해 중국의 역사의 모든 책을
유형별로 모은 종합 전집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유형으로 분류
유교경전, 역사, 각종사상가 시문학
(제자백가)

술수류



명리약언에서의 격국

격국유정유변(格局有正有變)

격국의 분류

정격(正格) – 정관격, 편관격, 인격, 재격, 식신격, 상관격

변격(變格) – 종격, 화격, 일행득기격, 양신성상격, 암충격, 암합격

격(格), 격국(格局)

사주의 유형을 정리한 것

사주의 짜임새를 분류한 것

사주원국에서 중심이 되는 기운으로 유형을 정한 것

정관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정관격의 사주.

재성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재격의 사주.

격의 장점

사주의 특성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음

격의 단점

유형화로 인해 종합적 사고능력을 잃음



명리약언에서의 격국

정격(正格)

정관격 - 인성이 같이 있으면, 관인격

재성이 같이 있으면, 재관격

편관격 - 인성이 같이 있으면, 살인격

재성이 같이 있으면, 재살격

인격 - 정관이 같이 있으면 관인격

편관이 같이 있으면 살인격

재격 - 정관이 같이 있으면 재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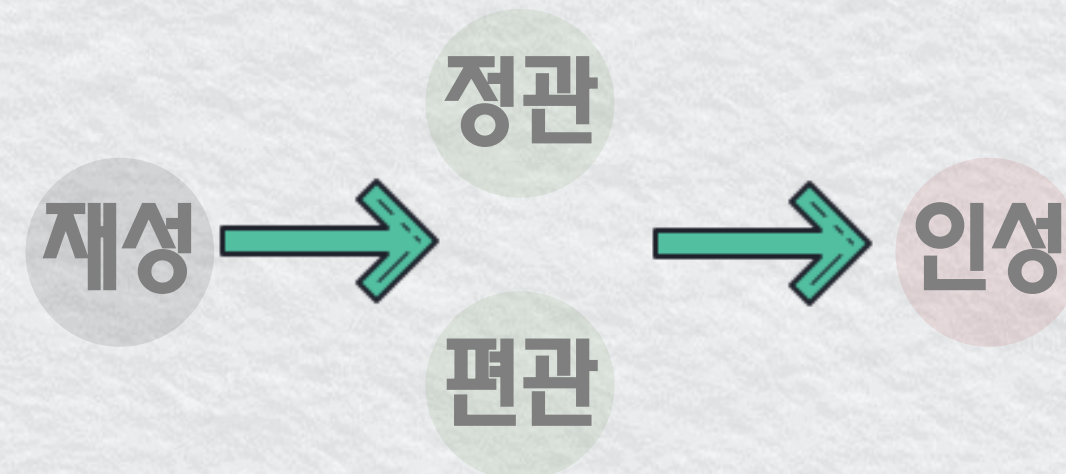
편관이 같이 있으면 재살격

식신격 - 편관을 이용하면 식신제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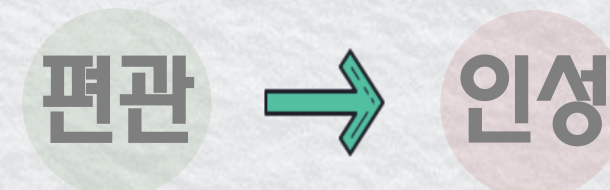
재성을 이용하면 식신생재격

상관격 - 인성을 취하면 상관용인격

재성을 취하면 상관생재격



관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는 재성에게 생을 받거나 인성을 생해야 안정적이다.



인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는 관성에게 생을 받아야 안정적이다.



재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는 관성을 생해야 안정적이다.



식신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는 편관을 극하거나, 재성을 생하면 안정적이다.



상관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는 인성이 상관을 제어하거나, 재성을 생하면 안정적이다.



명리약언에서의 격국

변격(變格)

종(從)격 - 일주가 무근하고 사주가 모두 **이면 종식격, 종상격, 종재격, 종관격, 종살격

(종從이란? 일간의 힘이 약하고, 사주에 하나의 십신이 강할때, 일간이 자신을 버리고 그 십신의 힘을 따라가는 상황)

화(化)격 - 일간과 월간, 일간과 시간에 천간합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갑목+기토 = 化土격

일행득기(一行得氣)격 - 일간이 지지에 삼합이나 방합을 갖출 경우, 갑목일간의 지지가 해묘미 혹은 인묘진일 때

양신성상(兩神成象)격 - 사주가 두개의 오행만으로 이뤄진 경우, 수목 = 상생격, 수토 = 상성격

암충(暗沖)격 - 지지의 왕성한 비겁이 충할 경우, 병오일의 오화가 2개인데, 자수를 충할 때

합(合)격 - 지지의 왕성한 비겁이 육합을 이룰 경우, 무진일의 진토가



2개인데, 묘목이 있을 때

명리약언에서의 격국

격국을 정하는 방법

격국선취당령, 차취득세 (格局先取當令 次取得勢)

= 격국은 먼저 당령한 오행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득세한 것에서 취한다.

1. 사주의 유형 즉, 사주에서 제일 주된 기운을 찾는 방법으로 월지의 중요성을 강조, (월지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격) 하지만 **전체 세력을 염두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함.**
2. 월지 지장간의 투출을 이용해 격국을 확정함.
(월지에서 정관과 재성이 투출했는데, 정관이 극을 당한다면, 재성을 격으로 삼음)

격국을 활용하는 방법

격을 이루는 것을 성격(成格)이라고하고,
격을 이룰 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

격이 깨지는 것을 파격(破格)이라고하고,
격이 깨어질 때 좌절을 겪음.

격은 월지나 세력의 강함을 통해 찾고,
성격이 되는지, 파격이 되는지는 격을 돕거나 해치는 암신(暗神)의 작용을 통해서 판단해야 함.

정관격인데, 원국의 상관이 암신으로 작용한다면 파격
정관격인데, 운으로 암신인 상관이 들어왔다면 파격되는 시기

명리약언과 억부용신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신(用神)의 개념

연해자평(명초), 삼명통회(명말)에도 용신이라는 단어가 간혹 쓰이기는 하지만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음.

유기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적천수(저작연대미상, 명대로 추정)에도 용신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음.

억부(억제하고 도와준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억부용신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

하나의 챕터로 등장하고, 책의 처음 부분(5장)에 등장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명리약언 –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 두괄식의 구성을 갖추고 있음. 총론을 제시하고, 각론을 설명하는 구성. 총론 부분에 억부용신이 제시되어 있음.

명말~청초로 넘어오는 시기에 억부용신이 사주길흉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추론.

명리약언과 억부용신

명리약언의 억부용신법

5장 간용신법(看用信法)

명이용신위긴요. 간용신지법 불과부억이이. 범약자의부, 부지자, 즉용신야.
 (命以用神爲緊要. 看用信之法 不過扶抑而已. 凡弱者宜扶, 扶之者, 卽用神也.)

명에는 용신이 중요하다. 용신을 보는 법은 억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무릇 약한 것은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간명자, 간용신이이의.
 (看命者, 看用神而已矣.)

명을 보는 것은 한마디로 용신을 보는 것일 뿐이다.

명리약언에서의 용신의 개념

1. 돕는 힘이 지나치면 돕는 힘을 억제하는 것
 (인성과다 사주에서의 **재성**)
2. 돕는 힘이 부족한 경우 그것을 다시 도와주는 것
 (신약한 사주에서 인성이 약할 때 인성을 도와주는 **관성**)
3. 강한 것을 억제해주는 것
 (신강한 사주에서의 **관성**)
4. 억제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관성과다 사주에서의 **식상**)
5. 억제하는 힘이 약하면 그 억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신강한 사주에서 관성이 약할 때 관성을 도와주는 **재성**)

명리약언과 억부용신

명리약언의 억부용신 활용 방법

1. 일주에 용신이 있고, 용신에도 용신이 있는데, 용신의 용신은 결국 일주를 위해 사용한다.
 - 사주의 억부균형은 용신이 담당하고, 용신의 억부균형은 또다른 제2의 용신이 담당한다. 또다른 제2용신의 처지가 사주의 형세를 좌우한다는 뜻
2. 원국에 용신이 있지만, 운에도 용신이 있다.
 - 운으로 용신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길흉을 판단한다는 뜻
3. 용신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생조를 받아야 길하다. 반대로 용신이 손상되면 흉하다.
4. 억부의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 용신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
 - 오행의 밸런스가 치우친 사주의 경우, 용신을 쓸 수 없다.

자평진전의 저자

심효침(沈孝瞻)

청나라 건륭 4년 1739년 진사시험 합격

진사합격자는 천자문생(天子門生)이라 불렸으며, 대부분 중앙정부(북경)의 관리가 됨

진사 = 청대 최고의 지식인, 유학자의 최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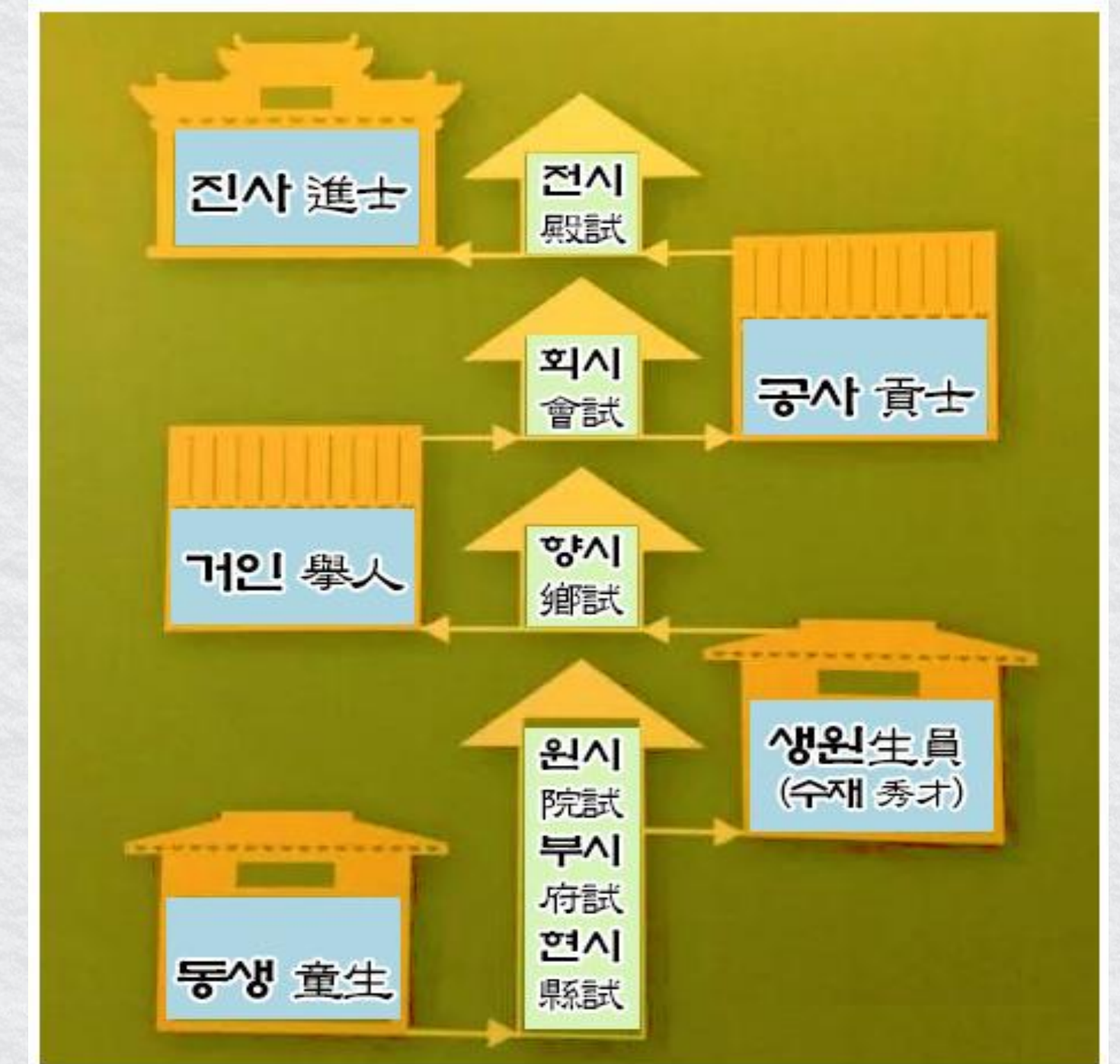
포인트 1. 명리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나,

관리라는 신분으로 인해 생전에 명성을 떨치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

2. 자평진전 체계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이유? 명리약언보다 더욱 요약, 정리

당시대 최고 지식인의 작품, 중앙관리의 성향 반영 - 체계화, 조직화, 이론화, 요약능력

잡다한 이론을 배제하고 단순한 모델링(가설)의 수립이 가능했음



자평진전의 출판

출판

호혼(胡混)이 자신의 친구인 장군안(章君安)에게 자평진전을 소개

1776년, 장군안이 “자평진전(子平眞詮)-자평명리학의 진정한 해설서 ” 이라는 이름으로 출간

1895년 조성교&이성과가 출간

1936년 서락오 『자평진전평주』-자평진전해설서 출간



발전과정에서의 자평진전

격국을 정리하다

진소암

명리약언(청대) – 신살 비판, 납음 비판, 십이운성 비판

격국과 억부의 체계 정립, 용신론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돋보임

최초로 명리를 정리화, 체계화 한 이론서

이론의 소개에서 벗어나 저자의

견해를 일관되게 논술한 최초의 명리학 서적

심효첨

자평진전(청대) – 격국의 체계 정리, 격국용신의 체계 완성

명리약언에서 제시된 격국을 체계적 정리

월지(월령)을 중시하는 방법론 제시



삼명통회, 명리약언, 자평진전의 공통점

술수가 드디어 학문의 반열에..

명리학의 위대한 고전들(삼명통회, 명리약언, 자평진전)의 공통점은?

저자가 지식인 = 관료(지배계층)라는 점

계통화, 체계화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중앙 관료들이 무수히 난립하는 명리 이론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체계화함

->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명리가, 드디어 명리학 - 즉 학문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됨

자평진전 격국론

팔자용신 전구월령

제 8장.

八子用神 專求月令

팔자용신 전구월령

사주원국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함.

자평진전 격국론의 핵심구절

자평진전에서의 용신(用神)의 의미

사전적 의미 : 도구가 되는 기운

심효침이 말하는 용신 : **월령, 혹은 월령에서 투출한 기운, 인간이 사용하는 주된 도구**

일간이 기준이고, 용신은 월령에 있으며,

일간과 용신과의 관계를 살펴 용신의 방향성에 따라 길흉을 논함.

의의 : **기준이 되는 일간과, 중심이 되는 월령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사람 사람이 태어난 환경과의 관계성을 중시

청대 관료이자 지식인인 심효침의 사회관 반영? 계급중시, 봉건제 중시



자평진전 격국론

격국 (살려서 잘써야하는 유형-순용)

재관인식(財官印食) – 용신이 선하니 순용한다.

재격 – 월령에 재성을 갖추고 재성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정관격 – 월령에 정관을 갖추고 정관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인성격 – 월령에 인성을 갖추고 인성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식신격 – 월령에 식신을 갖추고 식신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사주원국이나 운을 통해

용신이 잘 살아나야 조화로움

자평진전 격국론

격국 (제어해서 다스려야하는 유형-역용)

살상겁인(殺傷劫刃) – 용신이 불선하니 역용한다.

편관격(칠살격) – 월령에 편관을 갖추고 편관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상관격 – 월령에 상관을 갖추고 상관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월겁격(건록격) – 월령에 겁재를 갖추고 겁재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

양인격 – 월령에 양인을 갖추고 양인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사주원국이 운을 통해

용신을 제어해야 조화로움

월겁 – 음간 일간에서 월지에 겁재가 있는 경우

양인 – 양간 일간에서 월지에 겁재가 있는 경우(신살 양인의 이름을 붙임)

건록 – 월지에 비겁이 있는 경우

왜 음간과 양간을 구분하였는가?

양간의 겁재가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 따로 구분함.



자평진전 격국론

용신을 살리는 방법(순용) - 용신이 지켜지고 보호되면 길함

상신(相神)

용신(用神, 格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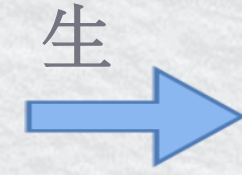
상신 (相神)

정관격

재성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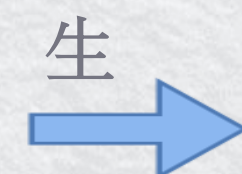
인성

재성격

식신



재성



정관

인성격

관성



인성

식신격

식신



재성

역할:용신을 지켜주는 어머니(인성)

용신의 힘을 북돋아 줌

역할:용신을 지켜주는 자녀(식상)

용신을 보호해 줌<관을 막아서>



자평진전 격국론

용신을 살리는 방법(순용) 예시

신금을 잡아먹으러 왔다!!

저리가!!

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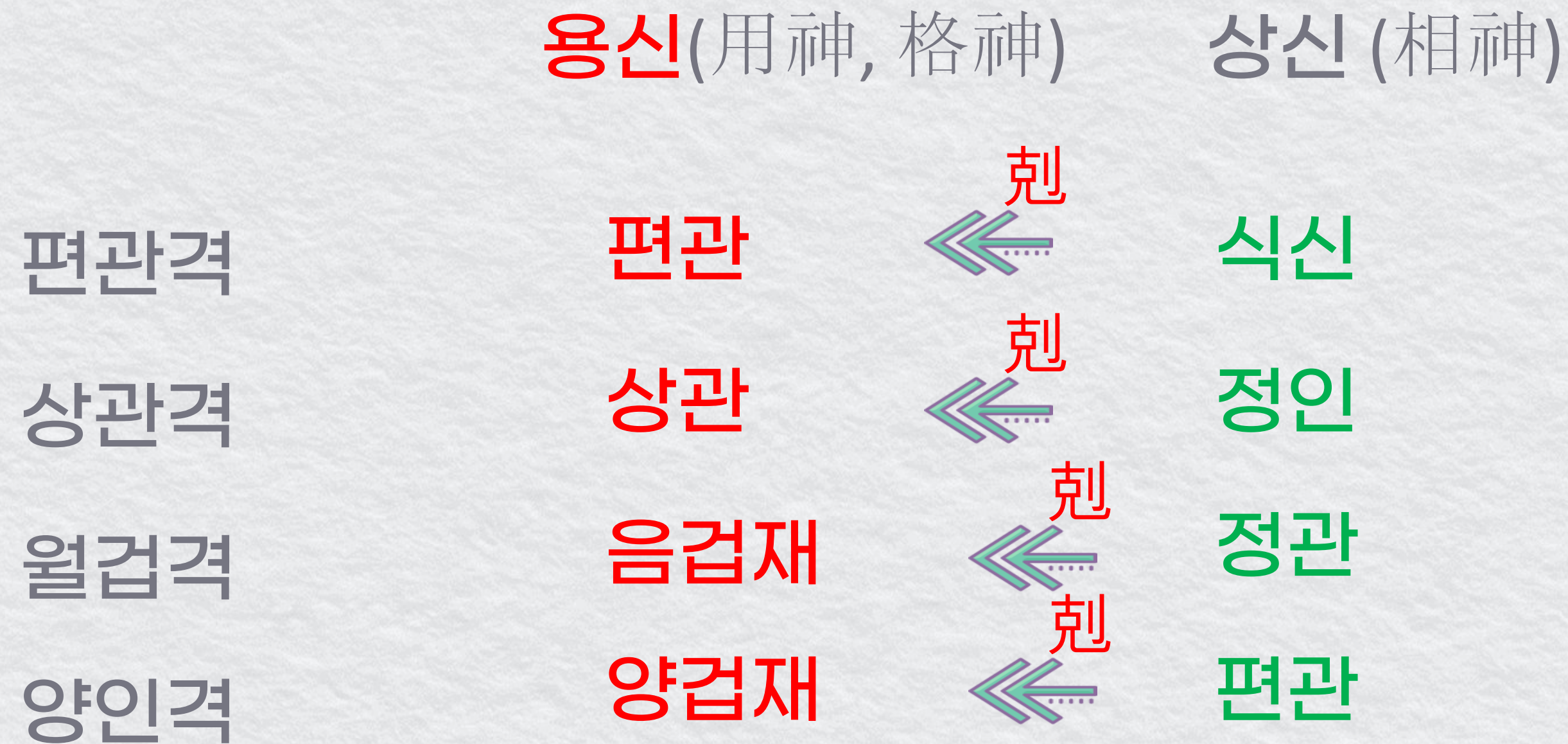


1. 월지에 정관이 있음
2. 월간에 정관이 투출함 = 정관격 이룸
3. 연간의 무토가 신금을 생해줌 = 정관의 힘 안정적 발현
4. 월간의 정관이 시간의 계수를 생해줌 = 계수로 인해 정관이 보호됨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 정관이 극을 당하는 것이 제일 염려스러움.
 즉 상관인 정화의 등장위험이 될 수 있는 사주임
 따라서 사주원국에 계수가 있다면 정관이 아름답게 보호될 수 있음.

자평진전 격국론

용신을 살리는 방법(역용) - 용신을 제어하고 안정시키면 길함



역할 : 용신을 제어해줌 (용신의 관성)

자평진전 격국론

용신을 살리는 방법(역용) 예시

내가 편관을 제어해 줄게 !



1. 월지에 편관이 있음
2. 월간에 편관이 투출함 = 편관격 이룸
3. 연간의 편인이 편관의 기운을 빼줌 = 편관이 유통되어 부정성 감소
4. 시간의 식신이 월간의 편관을 극해줌 = 편관이 제어되어 부정성 감소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는 강한 편관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함

즉 식신인 정화가 필요한 사주

게다가 정화와 계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화가 마음놓고 편관을 극할 수 있음

자평진전 격국론

자평진전 격국론 정리

1. 기준은 일간

2. 월령에 놓인 십신을 그 사주의 유형으로 간주

3. 월령이 투출하였다면, 격이 이루어졌다고 봄.

(투출하지 않아도 격으로 보지만 급이 떨어짐)

4. 월령의 십신을 길한 십신과 흉한 십신으로 구분함

(길-관재인식 흉-살상겁인)

- 재성, 정관, 인성은 길하게 봄 (편인의 경우, 식신을 극할때만 흉하게 봄)

- 상관, 편관, 겁재는 흉하게 봄

5. 투출한 월령의 생과 극을 통해 길흉을 파악함.

포인트 : **흉이 극 당하면 좋음. 길이 너무 강할때는 극 당하면 좋음.**

흉이 약하면 생해야 좋음. 길이 너무 약하면 생해야 좋음.

의의

- 격국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명리학 고전 중 가장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저작>

- 신살과 납음을 배제하고,

십신과 힘의 균형, 자리의 위치만으로 길흉을 판단함.

- **격국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간의 강약, 십신의 강약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었던건 아닌지..)

자평진전의 이해

현묘가 꽃힌 포인트

1. 자평진전에서는 왜 투출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지지보다 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

2. 지장간의 투출에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

지장간을 활용한 투출과 통근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함

십이운성(절, 태, 묘)의 은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간지의 힘의 세기를 측정하려 함

3. 자평진전 예시에서 모든 조화는 어디에서 이뤄지는가?

천간 극(합)에서 이뤄짐

즉 길한 용신이 극을 당했을 때를 최악, 흉한 용신이 극을 당했을 때를 최고의 본다는 건

천간의 극은 아주 강한 작용이라는 것

즉 극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주원국의 목소리를 훨씬 잘 들을 수 있음

자평진전에서의 용신

심효침이 생각한 용신(격국용신)이란?

1. 일간을 제외하고 **사주에서 제일 강한 기운**을 의미함.
2. 제일 강한 기운은 월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고 천간(T존)에 투출해야 함
3. 심효침에게 용신이란? 타고 태어난 주요한 기운, 즉 용신은 **일간이 사용할 수 있는(사용해야만 하는) 주된 도구**
4. 길흉의 판단 : 도구를 잘 쓸 수 있는지의 여부
5. 도구를 둘로 나누고, 좋은 **도구**는 튼튼하고 보호되어야 함. **상신**의 작용 -> 용신을 생하고, 용신을 방어함.

예시) **재성**이 용신이라면, **식상**을 통해 튼튼하게 유지, **관성**을 통해 보호되어야 함.

나쁜 **도구**는 제어되어서 안정되어야 함. 상신의 작용 -> 용신을 극함.

예시) **편관**이 용신이라면, **식신**을 통해 제어해야 함.

난 이 칼을 쓰기 위해 태어났고, 이 칼의 상태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좋은 칼은 극 당하면 안되고, 나쁜 칼은 다듬어야 해.



명리약언 VS 자평진전

공통점

1. 관료 지식인의 저작물

그간 이론의 소개에 그쳤던 명리서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자의 일관적이고 명확한 관점 제시
체계적 유형화, 이론화

2. 사주의 유형을 격국으로 정리함.

격을 판단할 때 월지를 중시함.
천간에서 이뤄지는 극의 작용 (정관<-상관, 편관<-식신)에
중점을 둠

차이점

	명리약언 1660년	자평진전 1760년
용신의 규정	억부용신 균형을 도와주는 요소	격국용신 주된 도구가 되는 요소
격국의 구분	정격과 변격으로 구분 (6격)	선한 격국(용신)과 불선한 격국(용신)으로 구분
격국의 완성을 돕는 기운	암신이라는 용어를 사용	상신이라는 용어 사용

현묘의 용신이란?

사주의 중심 기운

사주의 중심 기운을 찾는 방법

명리약언과 자평진전에서는

먼저 월령과 투출한 천간을 통해 사주의 중심기운(많은 기운)을 찾았음.

또한 사주전체에서 세력이 왕성한 기운을 사주의 중심기운으로 정의함. 사주의 중심기운 = 격.

우리는 T존과 지지(일월시지)의 상황을 통해 사주의 중심 기운을 판별해야 함.

월지와 투출한 천간으로 보는 방법과 맥락은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월지의 비중을 낮추고, 일지와 천간(월간, 시간)의 비중을 높인 것.

거리가 아주 중요함.

현묘의 용신이란?

사주의 중심 기운

사주의 중심 기운의 의미

사주의 중심 기운은 곧 사주에서 세력이 강한 오행(십신)을 의미함.

세력이 강한 오행의 의미

- 1. 태어나면서 손에 든 도구
- 2. 평생동안 써야 하는 기운

- 3.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기운 → 직업적으로 발현하면 좋음. T존이 **직업**을 암시하는 이유
- 4. 사주(삶)의 균형을 치우치게 만드는 요소 → 중심기운은 균형의 관점에서는 곧 **약당**
- 5. 한 사람의 색깔, 성향과 본질 → 중심기운의 오행과 십신이 곧 그 사람



현묘의 용신이란?

사주의 중심 기운

사주의 중심 기운으로 인한 치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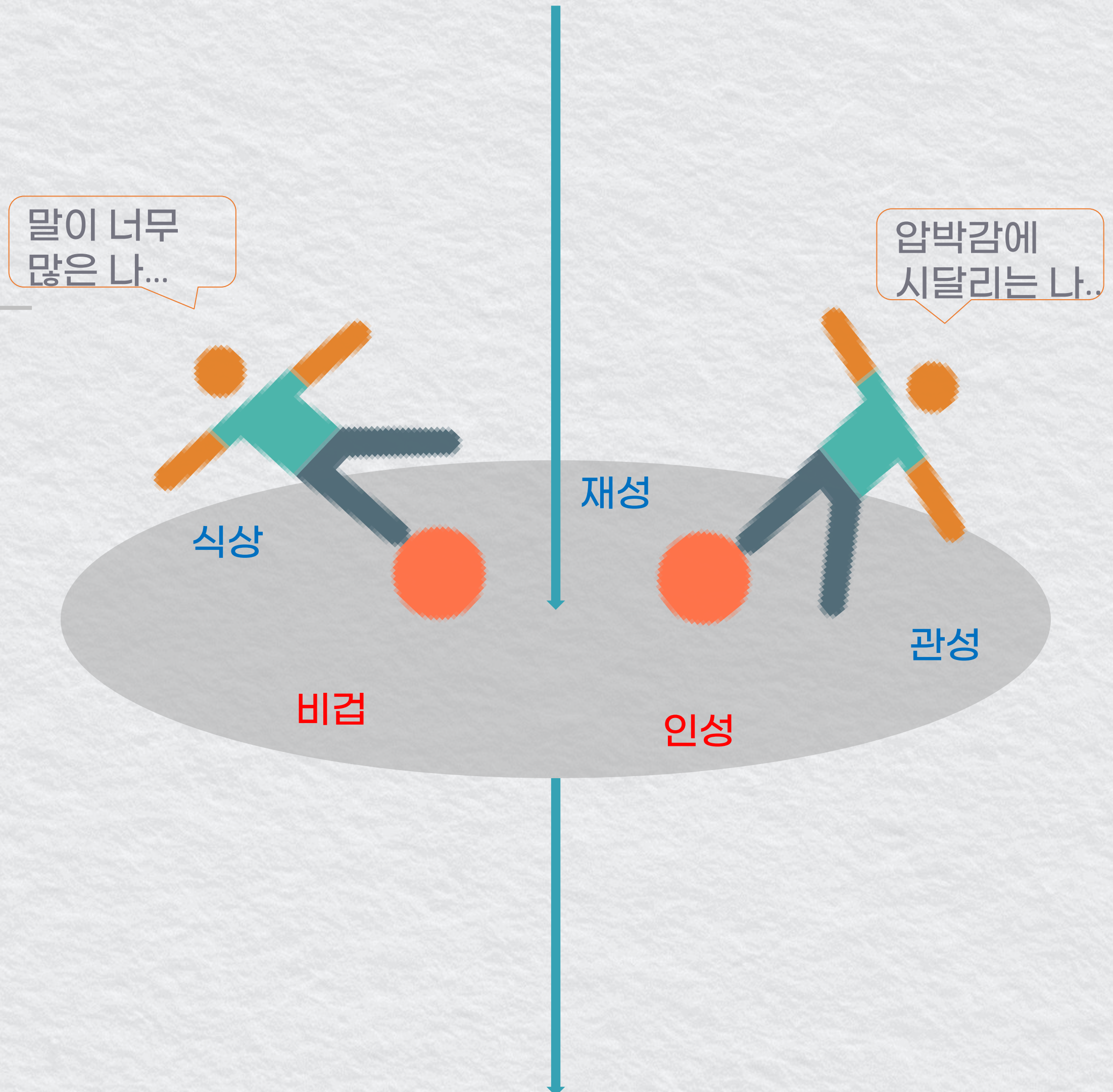
우주에 완벽한 균형은 없음

모든 사주, 모든 인간은 중심기운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치우친 것을 통해 한 사람의 고유성이 발현

치우침의 방향을 둘로 나누면, **신강**, **신약**

치우침의 방향을 다섯으로 나누면,

비겁강, **식상강**, **재성상**, **관성강**, **인성강**



현묘의 용신이란?

행복과 안정은 어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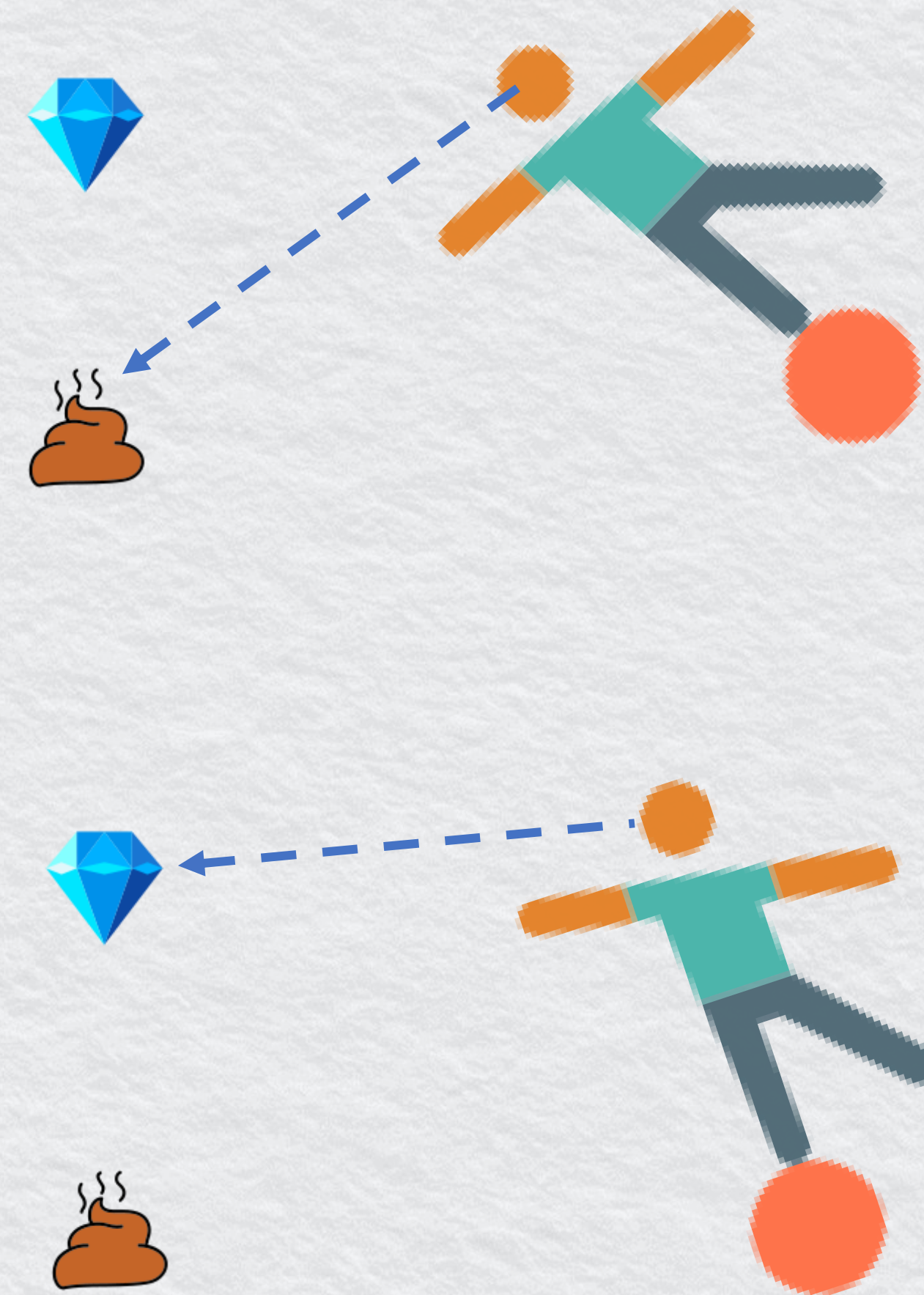
행복과 안정은 중심기운으로 인한 치우침이 보완되었을 때 찾아옴

중심기운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침이 과도하다면,
시선의 방향이 치우쳐져 있음을 의미

감정의 치우침, 판단력의 저하,
좋지 않은 선택, 좋은 걸 봐도 좋은줄 모름

어떤 요소에 의해 치우침이 보완되어 있다면,
시선의 방향이 안정적임을 의미

감정의 안정, 판단력 상승, 좋은 선택, 좋은 것을 좋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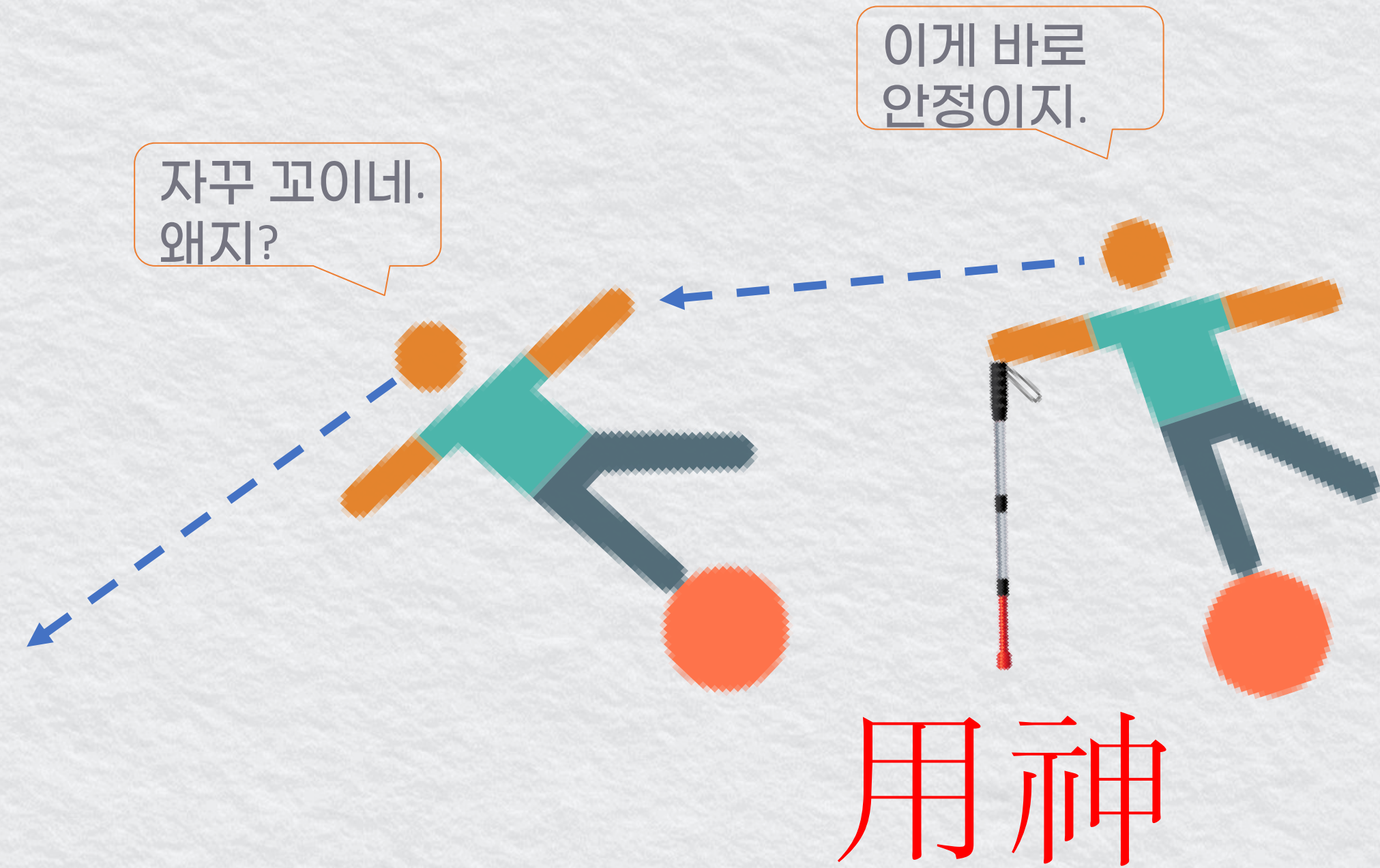


현묘의 용신이란?

치우침을 보완하는 기운

치우침을 보완하는 기운이 곧 용신

용신이란, 치우친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



현묘의 용신이란?

용신(지팡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추구할 수 밖에 없는가?
 사주의 많은 기운, 즉 중심오행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음
 사주의 중심이 되는 기운이 곧 그 사람

2. 용신은 모든 사주에 이미 갖춰진 요소

사주가 결정되면, 용신은 자동으로 결정됨

따라서 명리학자가 “용신을 잡는다”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임.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용신을 결정하고, 특정 기운(용신)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음

상담의 과정에서 “네 용신을 화로 잡고, 그것을 써라?” X

우리는 용신을 찾는 공식과 많은 수단(대화, 인터뷰, 삶의 이력 확인)을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용신을 찾아야 함.**

3. 용신은 원국(T존)에 있을때 or 운(대운, 세운)으로 들어올 때
 참다운 역할을 함.



현묘의 용신이란?

길흉과 용신

길하다는 것

용신의 긍정적 작용으로 인해 사주의 균형이 맞아서 안정적인 삶을 향유하고,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좋은 사주란? 부자가 되는 것, 인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좋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기운(사주의 중심기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음.

흉하다는 것

용신의 부재, 용신의 부정적 작용으로 인해 사주의 불균형이 심해져 불안정한 삶을 버티며,
제대로 된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나쁜 사주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用神

현묘의 용신이란?


중심기운과 용신의 상관관계

사람은 용신을 쓸때 행복한 것이 아님. 사람의 본질은 중심기운에 있음.
따라서 중심기운을 잘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음.

사람의 중심 기운을 악으로 규정하고, 선인 용신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함.
무조건 용신을 추구해라. 용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중심 기운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용신이 되는 것.

용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삶에서 용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중심기운을 잘 쓰기 위해서임. 나의 본질(중심기운)을 버릴 수 없음. 버려서도 안됨.

용신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중심기운을 더 잘 쓸 수 있음.

재성이 많은 사람에게 재성을 쓰지 말고, 용신인 비겁을 쓰라?? ->불가능 
용신인 비겁의 기운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재성을 잘 쓰기 위한 것임.

현묘의 용신이란?

용신은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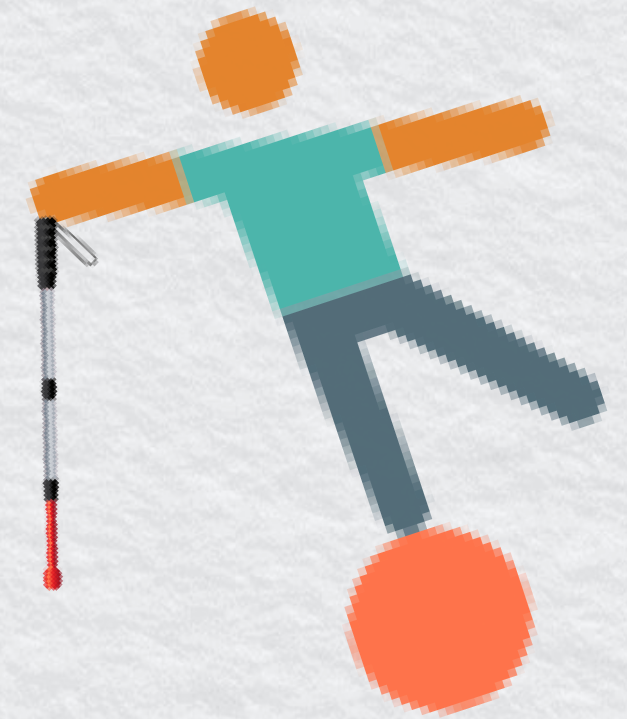
용신은 중심기운을 잘 쓰기 위한 **도구**이자,
운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별하는 **척도**가 됨.

도구를 알고,
운에서 언제 내 도구가 힘을 발휘하는지 알면,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

사주풀이는 곧 용신놀음?

용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진짜 즐겁게 놀 수 있음.



신에 대한 이야기

신이 무엇인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신은 바로 우주의 섭리이며, 자연의 법칙

신이 곧 우주이고 자연이라면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섭리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됨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은 지구의 회전을 통한 반복에 있음

즉 우주와 자연의 리듬을 알 수 있다면,
우주와 연결된 나의 리듬을 알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난 이유,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음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신성한 전당에서 참회하고 행복과 복록을 기원하는 것에서 한발짝 나아가,
스스로의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함

우주의 리듬과 스스로의 리듬을 이해한 자가 곧 해탈한 자가 아닐까?

따라서 명리학이 대두될 수록 불안한 이들은 이성으로 무장한 과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임

현묘의 사주명리 종급

수고하셨습니다.
